

## 배선기구 제조업체 “동양전자”

기술정보신뢰성과 행정사무관 이덕웅  
(02)509-7232 dwlee@ats.go.kr



동양전자 대표 지 흥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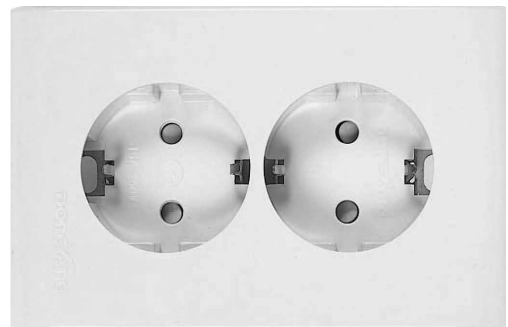
인간, 기술, 그리고 꿈을 접속합니다.

배선(配線 : wiring)이란 전기·전자기기나 전신전화장치 기기에 있어서 각 구성 부품, 패널 광채 또는 래크(rack)상호간을 접속하여 회로방식, 회선을 구성하기 위한 도선을 말한다. 각 도선은 그 접속 장소, 방향, 부품, 회로의 종별 등을 잘 알수 있게 하기 위한 색별선종 등이 보통 채용된다. 다시 말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구역 전체의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및 이것을 지지 또는 보관하고 저장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기·전자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무한대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술에 비해서 우리 동양전자산업(주)의 생산품은 미미하고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아니될 우리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부품 하나하나에도 장인 정신의 혼을 듬뿍 담아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 그리고 사회와 환경, 또 인간의 꿈까지 안전하게 연결하는 완벽한 제품, 저희 동양전자산업(주)의 영원한 꿈이며 자부심입니다.”

1985년 7월에 동양전자를 설립한 지흥세 사장은 그동안 코드 붙은 콧음플러그, 멀티탭, 어댑터, 기타 콧음접속기, 기구용 플러그, 방수소켓, 본센트, 네입 스위치 등 그동안 만든 제품도 다양하다. 내지 20년동안 배선기구류 제조에 전념해왔다.

우리나라 배선기구류 제조업 전문인의 한사람으로 손꼽히는 지사장은 그의 이 분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꼼꼼한 제품의 설계, 더좋은 재질의 선택, 세심한 부품조립, “어느 공정하나 소홀함이 없이 완벽을 추구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과정을 기치는 것은 제품의 마지막 검사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제품이 밖으로 나가 출시되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이지요.” 이 대목에서는 지사장은 특





히 힘주어 말한다.

불량률 0% - 이것이 바로 동양전자산업의 까다로움이자 자  
 중심이라고지사장은 도로한다. 즉 동양전자의 명성은 제품으로  
 확인된다는 뜻이다.

“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고용분제가 크게 확대되므로 고용  
 효과가 높은 제조업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제조업의 전진없이 우  
 리나라의 GDP US\$20,000 - 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  
 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인건비, 기타 사회비용, 물가가 훨  
 씬 비싼 일본은 산업기반이 되는 제조업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  
 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장의 성난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라기  
 보다 사자의 포효같았다.

그만큼 그는 한국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불만이 많다. 노동자  
 의 시위, 중소기업마저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제조업 공동  
 화 현상,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 중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우  
 리는 눈이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발전을 우리는 역으  
 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동종의 중국제조업체  
 들이 어떻게 끈기있게 노력하고 발전해 가는지를 예의 주시해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거기서 오히려 우리는 배우고 적절한 마음의  
 준비와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사장은 그의 평소의 지론을 기침없이 뱉는다 “ 기반  
 기술은 반드시 국내에서 개발해서 보존해야 하며 여기서 실패하  
 면 기술도, 시장도 공급도 중국에게 모두 빼앗기게 될 공산이 큼  
 니다.” 그의 이 정도의 중국에 대한 지식이면 어디 전문가 집단에  
 가서 강의해도 될 듯 싶다.

21세기 전기 전자산업의 발달은 우리에게 생활의 윤택함과  
 편리함을 주었지만 전자파라는 또하나의 공해를 주고 있다.

“ 전자파 초기 차단플러그, 저희 동양전자산업(주)의 피땀어린  
 노력과 도전정신이 낳은 걸성품입니다. 전기제품의 환경규제에  
 따른 효과적인 제품설계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오십시오. 언제나  
 지 환영입니다.”

지사장은 다분히 세일즈맨다운 원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같이  
 선전하고 사훈을 털어놓는다 “ 창의적인 사고, 직구적인 행동,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자.” 그는 최고의 세일즈맨으로서  
 한바디를 잊지 않는다.

“ 고객은 산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객이 없는 곧 판로가  
 없는 것은 사상누각이지요. 공기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듯이 팔곳이 없는 제품이란 생각할 수 없지  
 요.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산소를 공짜로 얻는 것이라 생각하여 전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 의식하지 않음 순간에도 산소가 필요하듯 생선이 있는 곳에 판로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고객 권리가 중요하다는 대목이다.

“ 완벽집속 - 불량률 0%에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사장이 낸진 마지막 말이다. 